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하상희
부교수 정혜정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Sang Hee Ha

Associate Professor : Hye Jeong Ch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endeavored to test the causal model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father's and the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rough th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4 male and 293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The casual model was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AMOS 7.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and father's self-differentiation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mother's and father's self-differentiation had direct effect on son's self-differentiation level, which directly influenced hi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tes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lso revealed that daughter's self-differentiation level was positively influenced only by mother's self-differentiation, while father's self-differentiation did not influence femal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directly influenced by his or her self-differentiation level.

주제어(Key Words) :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세대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심리적 적응 (psychological adjust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시기는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전환기로서, 이 시기의 성공적 적응은 이후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에 초석이 된다.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 적응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그 무엇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김진아, 2004; 김희진, 2001; 정옥분, 2007)이라 할 것이다. 대학생이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적응력 있게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신영규, 1994; 이원옥, 2003)도 부모로부터의 분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불안정은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가족원 간의 갈등을 심하게 경험하는 개인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었다(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옥경희 1999 재인용).

사실 개인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과 부모의 영향은 비단 대학생 시기뿐 아니라 평생을 통해 지속되며, 이러한 점은 이미 여러 가족치료 이론가(Bowen, 1978; Kerr & Bowen, 1988; Satir, 1972)들에 의해 강조되어온 바이다. 특히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대표적 학자인 Bowen(1978; Kerr & Bowen, 1988)은 자녀의 심리 정서적 기능은 부모의 분화수준 및 핵가족 정서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부모의 분화 수준은 핵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맡고 이끄는 핵가족 정서체계에서 부모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므로 원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모의 분화수준은 자녀의 분화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기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포함한다. 심리내적 차원의 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과 자기입장(I position)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대인관계 차원의 분화는 개인이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과 타인과 융합(fusion with others)의 개념으로 구성된다(Kerr & Bowen, 1988; Skowron & Friedlander, 1998).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부모 혹은 원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화되어 있는 반면,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

성보다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고,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기능이 어렵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기가 어렵다(Kerr & Bowen, 1978). 자기분화는 개인의 성숙한 발달과 심리적 건강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Skowron & Friedlander, 1998)로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지만 자기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주변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역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많은 경험적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의 자기분화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Bartle-Haring & Probst, 2004; Murdok & Gore, 2004)으로 밝혀졌으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과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kowron & Friedlander, 1998; Tuason & Friedlander, 2000).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져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Skowron & Friedlander, 1998), 심리적 증상(Skowron, 2000)과 사회적 불안(Peleg-Popko, 2002)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분화를 포함한 핵가족 경험의 다세대 전수에 관한 Bowen의 시각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전영주, 1998; 정선옥, 2002; 정문자·전연진, 2005; 하상희·정혜정, 2008; Peleg, 2005)은 주로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자녀세대의 문제와 원가족 경험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 두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경험적 연구(하상희, 정혜정, 2008; Peleg, 2005)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세대의 자기분화 수준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부모와 원가족의 경험이 세대간 전수되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Bowen의 세대간 전수이론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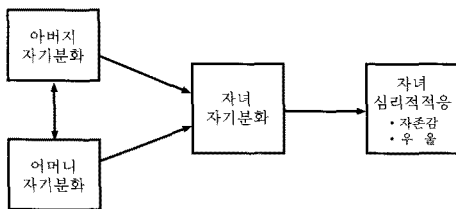
또한, 두세대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성별의 일치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이트나 에릭슨과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세대전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남순현, 2001; 전영주, 1998; 하상희, 2007; Anderson & Sabatelli, 1995)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부모 각자의 자기분화 수준이 대학생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부모 각자의 분화 수준이 대학생의 분화수준을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은 선행연구들(권미영, 1993; 남상인, 2003; 이경희, 2005; 이원옥, 2003; 임지혜, 2005; Chung & Gale, 2006)을 기초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였다. 즉, 긍정적 측면의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서 자존감을, 그리고 부정적 지표로서 우울감을 포함하고 부모세대의 자기분화 수준이 대학생 자녀의 분화수준을 통하여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Bowen의 가족치료 모델이 국내의 가족치료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과 교육에 실제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나 심리정서적 문제를 상담하는 현장에서 원가족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타당성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이 우리나라 가족주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이선혜, 1998; 신혜섭, 2002)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Bowen 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분화수준이 자녀의 분화수준을 통하여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자녀간 역동성이 달라지고, 그 결과 자녀가 받는 심리적 적응의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가정되므로, 자녀의 성별을 분리하여 이들이 아버지과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어 전반적인 정서적 적응상태를 잘 나타낸다(김성경, 2001). 현대사회에서 우울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권석만, 2000), 과거에 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정·손정락, 2006; 김희화·김경언, 1999).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 많은 변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존감은 심리적 적응의 주요 지표로서(송명자, 1995),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Wilson & Krane, 1980), 대인관계 문제(Rosenberg, 1986), 사회적 행동과 성격발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남상인, 2003, 재인용).

이와 같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 가운데 자존감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 본 선행연구(김완일, 김재환, 1992; 김현정, 손정락, 2006; Chung & Gale, 2006)들에서 두 변인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응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김희화, 김경언, 1999). 적응이란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되므로(전귀연, 최보가, 1995), 긍정적 측면의 지표와 부정적 측면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때 적응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은 자존감을, 부정적 측면은 우울을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적응은 여러 가지 요인과 연관되지만,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Bowen, 1978; Kerr & Bowen, 1988)에 의하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원가족 경험이 다세대 전수된 결과 형성된 자기분화 수준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은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기분화는 Bowen이론의 핵심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은 분화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Bowen, 1982; Kerr & Bowen, 1988).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객관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므로 자기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Papero, 1990).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검증한 이천숙과 이희자(1997)의 연구에서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높고 의존적이며 생활에 대한 적응 및 위기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융합되어 있어 합리적, 객관적 과정보다 주관적 감정에 의존하여 환경을 지각하고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남상인, 2003) 역기능적 증상을 나타내기 쉽다.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은 다양한 척도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우선 국내에서 수행된 자기분화와 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강소라, 박혜인, 2001; 권미영, 1993; 남상인, 2003; 옥경희, 1999; 조명희, 박수선, 1999)를 고찰해보면, 남상인(200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기분화 척도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여 자존감과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영(1993)은 제석봉(1989)의 자기분화 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을 살펴본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옥(2003)의 연구에서도 제석봉(1989)의 자기분화 척도와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S-D)를 사용하여 자기분화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호변인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동향을 고찰해 보면 Skowron과 Friedlander(1998)는 DSI(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를 사용하여 자기분화를 측정하고 사회적 불안, 생활만족도 등으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한 결과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Peleg-Popko(2002)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수준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Skowron, Holmes와 Sabatelli(2003)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생활만족도로 측정한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uason과 Fridlander(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심리적 적응과 불안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과 Gale(2006)의 연구에서도 자존감과 우울로 측정한 심리적 적응이 자기분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Austin과 Inderbitzin(1983), Bragan(1990), Fulmer(1982) 등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되려는 증상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조명희, 박수선, 1999, 재인용). Weiss(1987)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역동성과 자녀의 심리적 분리 및 대학생활 적응(우울, 불안, 대인관계 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간에 갈

등이 심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경험할 때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와 심리적 적응

Bowen은 세대간의 영향력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미치게 되며 이를 다세대 전수 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으로 설명하였다. 다세대 전수과정이란 여러세대를 통해 자기분화 수준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개인의 자기분화수준은 부모의 자기분화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Bowen, 1972; Kerr & Bowen, 1988). 어느 가족이든 대를 이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화수준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더 낮아지기도 하며, 투사과정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분화수준이 낮아지게 될 때 정서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자기분화가 형성되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 과정이며, 어릴 때부터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란 부모세대의 자기분화가 자녀세대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하상희, 정혜정, 2007; Bartle & Anderson, 1991; Kear, 1978; Peleg, 2005)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기분화는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기(2001)는 기혼 남녀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발생하는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의 자기분화에 손상을 입힌다고 하였다. 하상희와 정혜정(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를 한 쌍으로 2세대를 모두 표집하여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모세대의 자기분화는 자녀세대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Peleg(2005)도 부모와 대학생자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자기분화와 자녀 자기분화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Bartle과 Anderson(1991)도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의 세대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연구들(강소라, 박혜인, 2001; 권미영, 1993; 남상인, 2003; 옥경희, 1999; 조명희, 박수선, 1999; Chung & Gale, 2006; Peleg-Popko, 2002; Skowron & Friedlander, 1998; Tuason & Friedlander, 2000)이 수행되었다. 또한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연구(Kear, 1978)와 두 세대를 모두 표집하여 부모와 자녀의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와 관련된 연구(하상희, 정혜정, 2007; Peleg, 2005; Bartle & Anderson,

1991)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의 결과가 자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입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Peleg(2005)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분화와 불안의 관련성에 관해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자녀의 자기분화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기분화는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eleg(2005)의 연구는 단순히 부모의 자기분화와 자녀의 불안과의 관련성만을 입증했을 뿐 부모의 자기분화가 자녀의 자기분화를 통해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들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강은주, 2000; 임정빈, 정혜정, 1997, p68; Snyder, 1998)들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을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이론적 근거로서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가정되어 왔으며 남아와 여아는 모두 동성부모의 동일시를 통해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노안영, 강영신, 2006, p77).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거나 표현하여, 자녀의 성역할 사회화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임정빈, 정혜정, 1997, p73). 또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태도나 신념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주, 2000).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로 Osborne과 Fincham(1996)은 이성 부모-자녀 관계가 동성 부모-자녀 관계보다 취약하다고 밝혔으며, 전연진(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도 남녀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부모-아들과 부모-딸로 구분하여 각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은 자녀세대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쳐 세대간 전이가 되며 그 결과 자녀세대의 자존감과 우울 등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3. 연구가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 자녀의 자기분화는 아버지의 자기분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 자녀의 자기분화는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기분화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4.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을 통하여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5.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자신의 자기분화 수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생 자녀가 각각의 봉투에 담긴 부모용 질문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께 전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각각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 수집은 2007년 3월 5일 ~ 4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어머니-자녀를 한 쌍으로 표집 하였으므로 3쌍 중 한 명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것,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부실기재 된 것,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남학생 254쌍, 여학생 293쌍 총 547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대학생 자녀와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 자녀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연령은 아들의 경우 21.5세이며 각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딸의 경우는 평균 20.3세이며 20 ~ 21세가 45.9%(134명)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상이 11%(3.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50.8세였으며 46 ~ 50세가 46.5%(254명)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하가 7.1%(39명)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7.6세로 아버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6 ~ 50세가 53.5%(291명)로 가장 많았고 56세 이상이 3.1%(17명)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교육기간은 13.3년이었으며 대졸이상이 46.7%(253명), 고졸이 36.7%(199명), 중졸이상이 16.6%(90명)

(표 1) 부모의 일반적인 특징

변인	구분	N(%)*	
		아버지	어머니
연령	45세이하	39(7.1)	156(28.7)
	46-50세	254(46.5)	291(53.5)
	51-55세	185(33.9)	80(14.7)
	56세이상	68(12.5)	17(3.1)
	평균	50.8세	47.6세
교육 수준	중졸이하	90(16.6)	120(22.4)
	고 졸	199(36.7)	287(53.6)
	대졸이상	253(46.7)	128(23.9)
	평균	13.3년	12.0년
수입	200만원이하	146(30.9)	
	201-300만원	142(30.0)	
	301-400만원	71(15.0)	
	401만원이상	114(24.1)	
	평균	369.6만원	
결혼 기간	20년이하	115(21.5)	
	21-25년	299(55.8)	
	26년이상	122(22.8)	
	평균	23.3년	

* 무응답자를 제외한 백분율임

로 분포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평균교육기간은 12.0년으로 고졸이상이 53.6%(287명), 대졸이 23.9%(128명), 중졸이하가 22.4%(120명)로 분포되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기간은 23.3년으로 21 ~ 25년이 55.8%(299명)로 가장 많았으며 26년 이상 22.8%(122명)와 20년 이하 21.5%(115명)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족 수입은 200만원 이하 집단이 30.9%(146명)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 ~ 300만원 이하가 30.3%(142명), 301만원 ~ 400만원 이하가 15.0%(71명), 401만원 이상이 24.1%(114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369.6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16만원(통계청, 200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가구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측정도구

1)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Chung과 Gale(2006)이 번안한 Skowron과 Schmitt(2003)의 DSI-R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용, 어머니용, 자녀용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도록 문항의 내용을 약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의 자기분화 요인을 모두 포함하며,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내적인 측면의 자기분화는 '정서적 반응' 과 '자기입장' 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반응

(emotional reactivity)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의 정도와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며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을 많이 하며, 자기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기입장(I position)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타인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기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은 '정서적 단절' 과 '타인과 융합' 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부인 등을 나타내며,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심하며 자기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융합(fusion with others)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 개입된 정도, 부모를 동일시하는 정도, 부모의 가치나 신념 또는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 등을 의미하며,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융합이 높으며 자기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구성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용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3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역점 처리하여 자기분화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총 자기분화 척도의 연구 대상자별 자기분화의 하위영역 및 전체 신뢰도는 아버지 Cronbach's $\alpha = .56 \sim .83$, 어머니 Cronbach's $\alpha = .64 \sim .82$, 아들과 딸 모두 Cronbach's $\alpha = .61 \sim .86$ 의 범위로 나타났다.

2)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인실(2004)의 논문에서 사용한 Rosenberg(1979)의 Self-Esteem Inventory 1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하였다. 긍정적 문항 5문항과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부정 문항은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아들 Cronbach's $\alpha = .84$, 딸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hung과 Gale(2006)이 번안한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지난 한달 간의 경험을 '전혀 없었다' 0점에서 '거의 매일 그랬다' 3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점수화 하였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아들 Cronbach's $\alpha = .91$, 딸 Cronbach's $\alpha = .90$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6.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관련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표본크기나 척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해를 나타내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 ML법)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적합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가능하고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χ^2 통계량과 절대적합지수인 GFI, RMSEA 값, 증분적합지수 AGFI, CFI, TLI 값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χ^2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클수록($p > .10$)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값은 0.09이하이면 자료에 잘 적합하고, 0.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한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7). GFI, AGFI, CFI, TLI값은 0.9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수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부모-아들과 부모-딸의 공통모형을 산출하여 중다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 결과는 먼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후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아들, 부모-딸의 공통 모형을 산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자기분화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아버지-아들의 자기분화 측정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r = .13 \sim .35$ 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는 않았으나 부모와 자녀의 동일한 하위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기분화 총점수와 아들의 자기분화 총점수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아들의 측정변인들 간에는 $r = .14 \sim .31$ 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자녀의 자기분화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분화의 하위영역 중 어머니의 자기입장과 자녀의 자기 입장 영역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다음으로 아버지-딸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표 2> 부모와 자녀의 자기분화의 상관관계

부모	자녀	아들(n = 254)					딸(n = 293)				
		ER	IP	EC	FO	전체	ER	IP	EC	FO	전체
아버지	ER	.23***	.13*	.19**	.23***	.26***	.04	-.01	.00	-.05	-.00
	IP	.00	.20***	.10*	.03	.12	-.03	-.03	.06	-.04	-.01
	EC	.17*	.08	.35***	.09	.25***	.05	-.05	.07	-.04	.02
	FO	.17**	.07	.12	.23***	.20**	.04	-.01	.01	.03	.02
	전체	.20**	.16*	.27***	.20**	.28***	.04	-.04	.05	-.04	.01
어머니	ER	.21***	.07	.22***	.24***	.26***	.15*	.17**	.04	.14*	.16*
	IP	.01	.04	.19**	.04	.10	.06	.13*	.08	.02	.10
	EC	.15*	.03	.31***	.08	.20**	-.01	.08	.11*	-.03	.06
	FO	.14*	.03	.10	.23***	.17**	-.00	.07	-.02	.10	.05
	전체	.19**	.08	.29***	.21**	.26***	.07	.16**	.08	.08	.13*
평균		3.23	3.68	3.90	2.99	3.47	2.94	3.45	3.88	2.66	3.23
표준편차		.66	.52	.64	.55	.44	.64	.56	.59	.48	.43

ER: 정서적 반응 IP: 자기입장 EC: 정서적 단절 FO: 타인과의 융합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자녀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의 상관관계

심리적적응	아들(n = 254)		딸(n = 293)	
	자존감	우울	자존감	우울
정서적 반응	.38***	-.39***	.37***	-.43***
자기입장	.38***	-.22***	.51***	-.35***
정서적 단절	.49***	-.56**	.46***	-.45***
타인과 융합	.09*	-.17**	.13*	-.18**
전체	.46***	-.46***	.50**	-.48**
평균	3.04	.89	2.97	1.04
표준편차	.49	.49	.50	.46

* $p < .05$, ** $p < .01$, *** $p < .001$.

딸의 자기분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딸의 자기분화는 $r = .13 \sim .17$ 의 범위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들과 딸 모두 각 하위영역과 전체 자기분화수준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권미영, 1993; 남상인, 2003; 이경희, 2005; 이원옥, 2003; Chung & Gale,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 시 외생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므로 이론적 모형의 검증에

앞서 이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부 하위영역을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 자기분화와 어머니 자기분화의 동일한 하위영역간, 전체 자기분화간($r = .19 \sim .26$)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부모-자녀 공통 모형의 검증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아들과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공통모형을 산출하여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한 공통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으며 유의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chi^2 = 102.1, df = 52, p < .001$) 모형수정을 고려하였다. 모형수정은 경험적 지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론적 정당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기분화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그대로 투입하지 않고, Bowen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반응 요인과 자기입장 요인을 합하여 심리내적인 차원으로, 타인과의 융합 요인과 정서적 단절 요인을 합하여 대인관계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변수로 하여 모형에 투입하도록 수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가 매우 향상되었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44.7($df = 32, p > .05$)이며 GFI, CFI, 값이 0.9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값은 적합한 수준인 .05 이하로 나타나 부모-자녀 공통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4〉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분화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n = 547)					어머니(n = 547)				
		ER	IP	EC	FO	전체	ER	IP	EC	FO	전체
아버지	ER	1					.21***	.07	.18***	.12**	.21***
	IP	.36***	1				.06	.25***	.10*	.00	.14**
	EC	.48***	.28***	1			.14**	.07	.26***	.05	.20***
	FO	.52***	.14**	.38***	1		.17***	.01	.13**	.19***	.18***
	전체	.83***	.58***	.77***	.70***	1	.21***	.13**	.24***	.13**	.26***
어머니	ER	.21***	.06	.14**	.17***	.21***	1				
	IP	.07	.25***	.07	.01	.13**	.28***	1			
	EC	.18***	.10*	.26***	.3**	.24***	.47***	.15***	1		
	FO	.12**	.00	.05	.19***	.13**	.51***	.10*	.37***	1	
	전체	.21***	.14**	.20***	.18***	.26***	.82***	.52***	.74***	.70***	1
평균	3.52	3.92	3.96	3.30	3.67	3.40	3.86	3.83	3.20	3.57	
표준편차	.66	.51	.63	.52	.42	.67	.58	.67	.56	.44	

ER: 정서적 반응 IP: 자기입장 EC: 정서적 단절 FO: 타인과 융합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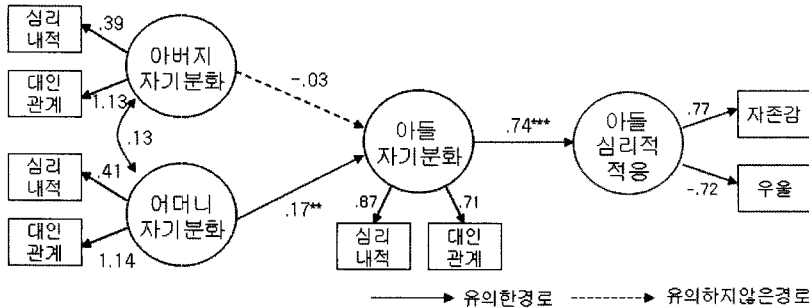
〈표 5〉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CFI	AGFI	RMSEA	TLI
수정모형	44.7	32	.07	.98	.99	.96	.03	.98

〈표 6〉 부모-아들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아버지 자기분화 → 아들 자기분화	.24	.10	.25	2.47
어머니 자기분화 → 아들 자기분화	.25	.11	.24	2.25
아들 자기분화 → 아들 심리적 적응	.59	.09	.63	6.74

z) ± 1.96



〈그림 2〉 부모-아들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7〉 부모-아들 수정 모형의 전체 효과 분석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표준	표준
아버지 자기분화 → 아들 자기분화	.25	×	.25
어머니 자기분화 → 아들 자기분화	.25	×	.24
아버지 자기분화 → 아들 심리적 적응	×	.16	.16
어머니 자기분화 → 아들 심리적 적응	×	.15	.15
아들 자기분화 → 아들 심리적 적응	.63	×	.63

z) ± 1.96

1) 부모-아들 모형의 검증

아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아들의 자기분화 및 심리적 적응을 동시에 투입하여 부모-아들의 수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부모-아들 수정 모형의 구조 경로 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고,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 효과는 〈표 7〉과 같다. 아들이 지각한 자기분화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기분화 수준으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의 자기분화 수준은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들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고 이는 아들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부와 모의 자기분화가 아들의 자기분화에 전수되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서, 부모의 자기분화는 아들의 자기분화 수준을 통해 아들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아들 모형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기분화 수준이 아들의 자기분화 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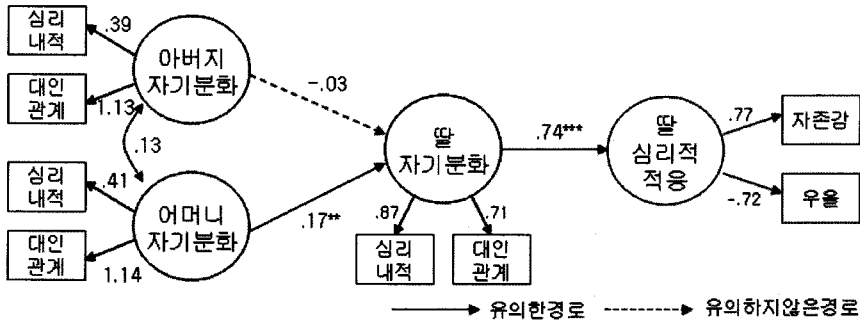
2) 부모-딸 모형의 검증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딸의 수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의 분석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딸의 자기분화 및 심리적 적응을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표 8〉에 부모-딸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 계수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 효과 분석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부모-딸 수정 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아버지 자기분화 → 딸 자기분화	-.05	.08	-.03	-.70
어머니 자기분화 → 딸 자기분화	.25	.09	.17	2.85
딸 자기분화 → 딸 심리적 적응	.93	.11	.74	8.55

z) ± 1.96



〈그림 3〉 부모-딸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9〉 부모-딸 수정 모형의 전체 효과 분석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표준	표준
아버지 자기분화 → 딸 자기분화	-.03	×	-.03
어머니 자기분화 → 딸 자기분화	.17	×	.17
아버지 자기분화 → 딸 심리적 적응	×	-.03	-.03
어머니 자기분화 → 딸 심리적 적응	×	.13	.13
딸 자기분화 → 딸 심리적 적응	.74	×	.74

z) ± 1.96

분석 결과, 딸의 자기분화 수준은 어머니의 분화수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분화수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딸의 자기분화 수준은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지만 아버지의 자기분화 수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딸 모형에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편 딸의 자기분화는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딸의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버지의 자기분화가 세대간 전수됨으로써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딸에게 전수됨으로써 딸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전체효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더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세대간 전이는 부모 세대의 자기분화가 자녀세대의 자기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 두 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남·녀 대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한 쌍의 단위로 547쌍 1641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부모-자녀간 자기분화, 자녀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 부모간의 자기분화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들과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공통모형을 산출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아들, 부모-딸의 모형을 구성하여 각각 경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중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아들의 수정 모형에서 아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들의 자기분화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기분화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기분화의 세대전이가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의 심리적 적응에 본인의 자기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자기분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딸 수정모형에서 딸의 자기분화는 아버지로 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의 심리적 적응에 본인의 자기분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세대간 전이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아버지의 직·간접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자기분화는 세대간 전이가 된다는 Bowen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자기분화의 세대전이 결과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 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본인의 자기분화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딸은 아버지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자기분화로부터 세대간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의 성별과 동성인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아들의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부계중심으로 원가족과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아들에게 이어지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의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남순현과 한성영(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의 경우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유대감이 어머니와 딸에게서 가장 강하게 형성된다고 한 Rossi와 Rossi(1990)의 연구결과(전영주, 1998, 재인용)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에서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현주(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현주(2005)의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정서적 건강을 응답하도록 하여 세대간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영향력을 좀더 명확하게 검증하였다.

아들과 딸이 부모의 영향력을 각기 다르게 받고 있으며, 딸의 경우 아버지의 자기분화수준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는 세대전이의 영향력은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되어오는 과정에서 핵가족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Bowen의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투사과정이나 핵가족 정서과정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가족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문제나 자기분화수준은 자녀에게 투사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이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중간체계인 핵가족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전이와 그 결과 나타나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이 있으므로 중간체계의 상호작용과정은 살펴보기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대전이의 과정에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핵가족 상호작용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원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있어 건강한 상호작용은 자기분화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자녀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향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원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성별에 따른 표집 대상, 분석방법의 제한점 등을 모두 보완하여 부모와 자녀 두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들과 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아들 모형과 부모-딸 모형에서 아들과 딸의 자기분화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자기분화는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Bowen의 다세대전수 이론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세대전이의 결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세대전이의 결과가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명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과모델의 검증을 통해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를 통해 자녀세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생활에 미치는 세대간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극복하도록 돕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내담자들의 부모세대나 자녀세대까지 확대하여 원가족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내담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기분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의 자기분화수준이나 원가족 건강성 등 가족관계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혼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결혼 이후 가족관계에 남녀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을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결혼 후 적응 프로그램, 상담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 시기의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전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예비부부교실이나 예비 부모교육 등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졸업 후 혼인 적령기의 미혼 남녀가 자신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표집을 부모와 자녀 3명을 한 쌍으로 하여 자료 수집 절차에 어려움이 많아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에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표집 대상을 전국단위로 선정하여 조사가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owron과 Schmitt(2003)의 DSI-R 척도는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 영역중 자기입장(I position)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강은숙(2005)과 신혜섭(2002)등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제한점으로 자주 언급되어온 문제로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가 가족주의적인 성향의 우리 가족 문화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정혜정, 조은경, 2007)는 기존의 하위영역 이외에 '정서적 융합'이라는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계성과 연결성을 증시하는 가족중심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정서상태가 관계나 타인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 한국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이용한 세대간 전이의 경험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은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역기능적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본 연구결과를 Bowen의 이론과 비교분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세대전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병리적인 증상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가족과 병리적인 가족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Bowen의 다세대전수 이론을 좀더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적응의 지표를 자존감과 우울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범주로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대학생들의 내적인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문제나 상담 등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소라, 박혜인(200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건강도 지각 관련 변인 연구. **과학논집**, 27, 19-37
 강은주(2000). 자녀 성차에 따른 양육태도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

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석만(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김성경(2001).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완일, 김재환 (1992). 대학생의 자기긍정감, 자기 복잡성 및 우울 성향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0, 249-270.
 김진아(200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발달에 관한 고찰. **제주관광대학논문집**, 10, 31-43.
 김현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김현주(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주부의 개인적 성장, 자아분화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김희화, 김경연(1999).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59-69.
 남상인(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543-558.
 남순현(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자녀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안영, 강영신(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혜섭(2002). Bowen가족치료이론과 한국적응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7, 193-201.
 옥경희(1999). 청년기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17-34.
 이경희(200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와 자아정체성과의 발달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선훈(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 자아분화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 관계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원옥(2003). 가족체계유형과 미혼성인의 자아분화,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천숙, 이희자(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5(3), 101-113.
-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임지혜(2005). 중년기 여성의 자아분화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7.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 전연진(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5.
-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희, 박수선(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서원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7, 81-95.
-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상희, 정혜정(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93-810.
- 한성열(2005). 한국인의 문화특수성: 가족관계로 본 한국 문화의 특성. **제5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학술 심포지엄**, 23-30.
- Bartle-Haring, S., & Probst, D.(2004). A test of Bowen theory: Emotional reactiv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clinical sampl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 419-435.
- Bartle, S. E., & Anderson, S. A.(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 Bowen, M.(1972).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D. Jackson(Ed.). *In family interaction: A dialogue between family researchers and family therapist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Aronson, Inc.
-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Aronson,
- Chung, H. J., & Gale, J.(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 367-381.
-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Kerr, M. E., & Bowen, M.(2005).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Norton Company.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공역). 서울: 학지사. (1988년 원저발간)
- La Greca, A. M., & Stone, W. L.(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Murdock, N. L., & Gore, Paul. A. Jr.(2004). Stress, coping,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 test of Bowen theor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3), 319-335.
- Osborne, L. N., & Fincham, F. D.(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adjustment: Dose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 48-75.
- Papero, D. L.(1990). *Bowen family system theory*. Boston, London, Sydney & Toronto: Allyn & Bacon.
- Peleg-Popko, O.(2002). Bowen theory: A study of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xiety, and physiological symptom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2), 355-369.

Peleg, O.(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2). 251-261.

Radloff(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ichard,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65-81.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s.

Rossi, A. S., & Rossi, P. H.(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Satir(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Skowron, E. A.(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47, 229-237.

Skowron, E. A., & Friedlander, M. L.(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29-237.

Skowron, E. A., & Friedlander, M. L.(2004).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Skowron, E. A., Holmes, S. E., & Sabatelli, R. M.(2003). Deconstructing differentiation: Self regulation, interdependent relating, and well-being in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 29-38.

Snyder, J. R.(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Tuason, M. T., & Friedlander, M. L.(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s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of Bowen's theory in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7-35.

통계청 <http://www.nso.go.kr>. 2007.2.7 보도자료

접 수 일 : 2008년 5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8일

〈부록〉 남자 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상관행렬

여자	남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표준 편차	
		심리 내적	대인 관계	심리 내적	대인 관계	심리 내적	대인 관계	자존감		우울
아버지	심리내적		.60	.26	.26	.21	.22	.14	-.11	.48
	대인관계	.51		.26	.37	.18	.30	.20	-.14	.49
어머니	심리내적	.20	.07		.51	.14	.27	.07	-.13	.48
	대인관계	.09	.10	.47		.13	.27	.09	-.16	.51
딸	심리내적	-.01	.01	.18	.05		.60	.45	-.38	.50
	대인관계	-.01	.03	.11	.06	.62		.37	-.45	.49
	자존감	-.04	-.06	.12	.08	.50	.39		-.67	.49
	우울	-.03	.03	-.07	-.04	-.45	-.41	-.55		.49
표준편차		.49	.46	.52	.51	.52	.43	.50	.46	

남자 = 254명 여자 = 293명